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에 응해주신 작업은 총 271건이었습니다. 개인에서 모임 형태까지 다양한 층위의 이슈와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인들이 직접 창작에 있어 기술 활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참여자 중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정책, 기관 혹은 대형 연구과제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소규모 연구지원 형태를 취했으며, 예술인 간 협력 연구와 토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개인뿐 아니라 모임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치밀한 설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대 공연의 온라인 영상송출에 따른 문제의식부터 언택트 상황이 가져온 예술생태계와 사회공동체간 상호작용의 변화와 파급효과, 그리고 확장된 언택트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안고 있는 불안정한 문화접촉에 대한 의제 등 신청건수만큼이나 다양한 현장의 다채로운 의제들을 마주한 평가였습니다.

또 한편으론 아쉬움을 남겼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취지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워딩과 개념적 설명은 제시되었으나 정작 연구 프로세스에는 해당 기술의 구체적용을 위한 실험이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제안들 그리고 너무 크고 포괄적인 연구과제로 본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제안들이 그러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총 3건의 연구를 선정하여 지원해야하는 사업 여건이었습니다. 제안된 연구들을 주제/의제/장르로 분류하고 해당 영역별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웠습니다. 제안된 연구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고 지원받아 마땅한 작업들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아주 소수의 연구과제만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문헌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의 정리와 개괄적인 문제제기를 도출해내는 연구과제보다는 (1) 예술과 기술이라는 두 세계의 미학이 만나서 새로운 미학을 도출해내는 데에 집중한 연구와 (2) 프로덕션 상에서의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이를 구현해내는 과정을 담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은 무대기술LAB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지원을 만들기 위한 파일럿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계기로 현장 중심 연구 지원에 대한 필요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사업 개선과 확대를 노력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선정되지 않은 많은 연구들이 다음 기회에 실제 구현되기를 바라며 평을 마칩니다.